

수직고경의 개선을 수반한 상,하악 총의치 임상증례

박명원 *, 이성복, 최부병, 최대균, 우이형, 권공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잘못 제작된 의치를 장착해 온 환자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하악과두위, 의치의 교합면 마모를 동반한 수직고경의 상실, 낮게 설정된 교합평면, 부족한 의치상 면적과 치조제 흡수에 의한 의치의 유지, 안정, 지지의 부족 등으로 인한 기능과 심미성의 상실 등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환자를 위한 총의치 재제작을 통한 수복과정 중에서 적절한 상하악의 수직적 관계의 설정은 임상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기계적, 생리적 방법을 통해 정확한 수직고경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무치악 환자의 총의치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의치의 지지, 안정 및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과 주위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상채득을 위해서는 구강조직의 해부학적, 생물학적인 면과 생리적, 기능적인 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잔존치조제와 주위 조직의 보호 및 상실된 부위의 수복이 가능하게 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75세의 여성환자로 약 15년 전에 제작된 상하악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기능시 하악 총의치의 움직임으로 인해 혀 및 설근의 과도한 활성화 및 목의 근육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의 관절와내에서의 과두의 위치는 비교적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낮은 수직고경으로 인한 구각부의 처짐과 구순지지가 다소 부족한 안모를 보였으며, 기존 총의치는 심한 교합면 마모, 짧은 의치변연 및 불결한 위생상태를 나타내었다.

환자의 주소 및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먼저 예비인상을 이용하여 임시 총의치를 제작하여 적절한 수직고경의 설정과 구순지지의 개선 및 의치상의 확대 등을 통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여 이용하여 적절한 해부학적, 기능적인 인상을 통해 유지, 안정 및 지지가 개선된 최종 총의치를 제작하여 수복하였다.